주간브리프
WEEKLY ISSUE BRIEF 2026. 7. 6. Vol. 26

국내 경제 동향

삼성·SK, 서남권에 895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▌'26-6-30 한국경제; 한겨레

- 삼성전자·SK하이닉스는 6월 29일 광주 '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'(이재명 대통령 주재)에서 서남권(호남)에 총 895조원(삼성 425조·SK 470조)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
-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현재의 절반인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전력·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100% 지원
  - 하루 65만t의 공업용수는 동복댐(30만t, 댐 증고로 25만t 추가)·주암(5만t)·장흥댐(10만t)·보성강댐(10만t)·나주댐(10만t)에서 확보. 특히 나주댐은 기존 농업용수를 인근 영산강물로 대체해 절약분을 공업용수로 전환

❖ 호남 농업지역에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며 지역 균형발전·농촌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, 나주댐 농업용수의 공업용수 전환 등 농업용수 이용체계 변화가 예정된 만큼 농업 생산기반·물 수급 영향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

6월 소비자물가 3.2% 상승 ▌'26-7-2 국가데이터처; 한국은행

-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1%·전년동월대비 3.2% 상승하며 3%대 지속. 석유류(전년동월대비 +24.7%)를 중심으로 공업제품이 전년동월대비 4.4%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 주도. 식료품·에너지제외 근원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.5% 상승
-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.4%, 전년동월대비 3.2% 상승
  - 축산물(전년동월대비 +6.2%; 국산쇠고기 +7.5%, 달걀 +10.3%)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, 쌀(+11.7%)·파(+37.1%)를 중심으로 농산물 전년동월대비 1.1% 상승
  - 가공식품은 전년동월대비 0.9% 상승하며 안정세 지속, 외식은 2.6% 상승
- 한국은행은 7월 물가가 국제유가 하락(두바이유 월평균 5월 103.2 → 6월 79.5달러/배럴)과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. 단,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가 유가 하방압력을 상쇄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
❖ 축산물·쌀 수급 안정과 비용충격의 가공식품·외식 전이에 대비한 식품물가 모니터링, 취약계층 먹거리 부담 완화 방안 점검 필요

원화 약세 속, 6월말 외환보유액 소폭 증가 ▌'26-7-1 경향신문; '26-7-3 한국은행

- 원/달러 환율(주간 종가 기준)은 6월 29일부터 3일 연속 상승해 7월 1일 1,554.9원 기록하며, 2009년 3월 6일(1,550.0원) 이후 17년 만에 주간 종가 1,550원대에 진입
  -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 이후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외국인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매도(상반기 누적 약 150조 원)에 따른 달러 수요와 상반기 결산 역송금 실수요가 겹치며 상승
- 6월말 외환보유액은 4,273.6억 달러로 전월말 대비 3.7억 달러 증가.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 기인해 소폭 증가
  - 한편 외환당국은 1분기 중 시장안정화 조치로 136.3억 달러를 순매도(분기 기준 역대 네 번째)

❖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농업 투입재 원가 부담 완화 효과가 고환율로 상쇄될 수 있음. 사료·비료 등 수입 농자재와 수입 식품의 가격 부담 확대에 대비한 수입가격 모니터링과 농가 경영비 부담 점검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OECD·FAO, 「2026-2035 농업전망」 발표 ▌'26-6-29 OECD

- OECD·FAO는 '35년 1인당 평균 농업 총소득은 3,800달러로 앞으로 10년간 9% 증가할 것으로 전망
  - 농업 노동생산성(달러): (고소득국) 21,100 → 22,155 (+1,055), (저소득국) 930 → 1,100 (+170)
- 농업 생산은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하겠으나, 경작지·가축 사육두수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6.5% 증가할 전망
- 국제 농산물 실질가격은 현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나,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일시적 급등 가능성 상존
- '26년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·비료 가격 상승이 농업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
  - 비료 사용량 감소로 곡물 생산 위축, 특히 저소득국에서 크게 위축
  - 이에 따른 소득 감소와 식품가격 상승으로 저소득국 가구는 식품 소비를 줄이거나 저가 품목으로 소비 전환, 고소득국 가구는 기존 식습관 유지
-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기준연도('23~'25년) 19.2%에서 '35년 16.8%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
  - 쌀 생산은 362만 톤에서 317만 톤으로 감소, 쌀 재배면적은 69.4만 ha에서 59.8만 ha로 감소
  - 밀·옥수수는 수입 의존 지속
  - 주식인 곡물, 유지작물, 두류, 서류의 1인당 총소비량은 120.8kg에서 114.8kg으로 감소
  -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5.8kg에서 59.6kg로 증가

❖ 곡물 자급률 하락에 따른 대외 의존 심화가 우려되며, 대체 작목 전환과 국내 생산기반 강화 등 관련 정책 점검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제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원장 선출 및 농해수위 위원 구성 확정 ▌'26-7-1 한국농업신문

- 지난달 30일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서삼석 의원(더불어민주당, 전남 영암·무안·신안)을 선출
  - 서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, 2018년 국회 등원 이후 20·21·22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농해수위에서 활동
  - 그간 농해수위 간사, 기후위기특별위원장,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농어업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 주력
-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 구성도 확정
  - (더불어민주당) 김성범·문금주·문대림·송옥주·윤준병·이개호·이재관·임미애·주철현 의원
  - (국민의힘) 김선교·박준태·서천호·이만희·정희용·조경태·조승환 의원
  - (조국혁신당) 신장식 의원, (무소속) 강선우 의원
- 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 개혁을 후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
  - 농협 개혁 과제: (1)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 구현, (2) 조합원 중심 운영체계 확립, (3) 금융사업의 공공성 강화, (4)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
- 이 외에도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
  - (1)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, (2) 농수산물 수급·가격안정 시스템 구축, (3)기후변화 대응 농정 전환, (4) 농어촌소멸 대응, (5) 수산업 경쟁력 강화, (6) 농어업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

❖ 농산물 가격안정, 기후변화 등 여러 농정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, 후반기 농해수위 차원의 입법·예산 심사 역할 중요